

국비 확보 사활 건 합평군수 거침없는 행보

이윤행 군수, 전남도·중앙부처·국회 오가며 예산 챙기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사업비 70억원 확보 현안사업 탄력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합평 이윤행 군수의 국비확보 행보가 거침이 없다.

13일 합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취임과 함께 6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민선 7기 핵심시책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서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확보 가능성 등 실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민선 7기 합평군의 핵심과제로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시스템 구축 ▲인구와 기업을 늘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력 ▲기술과 지식중심의 농업환경 조성 ▲더불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사계절 체류하는 소득형 관광자원 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고품질 교육 실시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원스톱 인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소통실 설치 ▲빛그리산단 내 친환경자동차 생산라인 설

치 및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드론-무선헬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기술농업 기반 조성 ▲지매안심센터 조기 완공 ▲용천사-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로드 및 가로숲길 조성 ▲합평 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체험센터 건립 등 65개로 구성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군수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등은 직접 챙기며 전남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오가며 예산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말부터 기획재정부



최근 국비확보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 이윤행(왼쪽) 합평군수가 이상원 기획재정부 복지에산심서관에게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건의하고 있다. <합평군 제공>

등 지역현안사업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중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억원, 합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4억원, 송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등 총 20개 사업에 933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8월에도 합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59억

원, 합평 5일 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48억원 등 총 4개 사업 283억 6000만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회를 찾아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만나고 이기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군의 핵심현안을 위해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46억원과 합평·영광지역개발연계사업 30억원, 송사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합평군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4억원 등 총 21개 사업 817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확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에도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7개 신청 사업이 모두 선정돼 총 4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결실을 맺었다.

이윤행 합평군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에게는 국비 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전남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의 문턱이 닦아 없어질 정도로 찾아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농민수당 지급 본격 시동 합평군 조례안 작성 착수

합평군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에 시동을 걸었다.

합평군에 따르면 농민수당과 관련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지급을 목표로 조례안 작성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이윤행 군수가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핵심공약으로 농민의 존엄성과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임기 내 반드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급대상 및 금액 부분은 합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합평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중 농가별 1개 농업경영체에 한해 월 10만원 이내 최대 12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평군 관계자는 “실제 지급까지는 직장인이나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군의회 설명회, 조례안 의결 등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어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수당 신청을 받고 영농기인 4~5월 중에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

합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다음달 19일~11월 4일

‘흐드러진 국화의 유혹’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다음달 19일부터 11월4일까지 합평군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13일 합평군에 따르면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를 주제로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 먼저 다양한 기획 작품과 수준 높은 분재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장 중앙광장에는 올해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 대교(구름다리), 남북통일열차, 마법의 성 등 대형국화조형물 5점, 국화동산 1점이 새롭게 조성된다.

또 지난해와 차별화하기 위해 올해 새로 생대습지 내 억새풀 미로원과 핑크플러리 14만 본으로 산책길을 조성하고 수석 전시와 무늬동백 분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합평전지 문화유물전시관은 올해도 개관하며 영무새 먹이 주기 체험, 식용국화따기 체험, 연 만들기 및 연날리기 체험 등도 운영한다.

식용국화따기 체험은 국향대전 조기 개장에 따라 개화시기인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만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특별행사도 펼쳐

진다. 개막일인 19일에는 중앙광장 평화통일대교 앞에서 개장식 및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다.

27일엔 합평 특산물인 한우와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8회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가 합평에서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예심을 거친 본선진출 20개 팀이 경합을 벌이면 대학교수와 요리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조리과정과 상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2팀에 전남도지사상과 100만원을, 우수상 3팀에 합평군수상과 5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축제장 내 위치한 합평군립미술관에서는 국향대전 특별기획 ‘가을 동화’ 전시회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밖에도 통기타와 국악, 클래식 공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이윤행 합평군수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수준 높은 국화작품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다음달 19일부터 11월4일까지 합평군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7일간 열린다. 지난해 국향대전이 열렸던 엑스포공원 일대 항공사진. <합평군 제공>

명품한우·단호박 요리대회 참가팀 내달 5일까지 모집

합평군은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한 달여 앞두고 제8회 전국 명품한우·단호박 요리경연대회 참가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명품한우·단호박 요리경연대회는 합평의 가을 대표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해 특산물인 합평전지한우와 단호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분야는 한우나 단호박을 이용한 주메뉴 1종, 웰빙간식 1종이다.

출품요리 설명서, 참가신청서 등 구비서

류를 10월5일까지 합평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팀에 전남도지사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3팀에 합평군수상과 상금 50만원을 시상한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농산어촌개발 7개 사업 선정 합평군 사업비 66억원 확보

합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합평군은 이번 선정으로 66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별로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개 마을(합평읍 월봉마을, 압다면 영화정마을, 대동면 감삼마을, 나산면 우수마을, 월야면 양지마을)에 24억5800만원을 들여 경관개선, 생활기반 확충,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는 2억원을 들여 주민교육과 마을리더 양성 등을 진행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 소득과 정주여건을 통해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시행하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지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 강사 :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잡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